

- **주요 뉴스:** 미국 10월 소매매출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예상치 상회 4/4분기 성장을 상향 전망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향후 FOMC는 좀 더 매파적일(hawkish) 필요
 - 미국 재무장관, 12/3일 이후에는 정부 현금의 부족
 - 국제에너지기구(IEA), 미국에서의 공급증가 등으로 유가 상승세 둔화를 예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10월 소매매출 호조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등이 영향
주가 상승[+0.4%], 달러화 강세[+0.5%], 금리 상승[+2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주가 하락 우려 완화가 반영
 유로 Stoxx600 지수는 마중 관계 개선 기대 등으로 0.2%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소비지표 등으로 16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지속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4%, 0.6%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제성장 지속 가능성 등이 배경
 독일은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전망 등으로 1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185.2원, +4.3원) 0.4% 상승, 한국 CDS 보합

		11/16일	11/15일	전일대비			11/16일	11/1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700.9	4,682.8	0.39%	국채 금리 10y	미국	1.63%	1.61%	2bp
	유럽	489.27	488.43	0.17%		독일	-0.24%	-0.23%	-1bp
	중국	3,521.8	3,533.3	-0.33%	CDS 5y	한국	19bp	19bp	0bp
	일본	29,808	29,777	0.11%		중국	52bp	52bp	0bp
	한국	2,997.2	2,999.5	-0.08%	위험 지표	EMBI+	-	366	-
환율	달러지수	95.92	95.41	0.54%		VIX	16.37	16.49	-0.73%
	유로화	1.1320	1.1368	-0.42%		WTI유	80.76	80.88	-0.15%
	엔화	114.82	114.12	-0.61%	원자재	구리	434.4	440.0	-1.27%
	위안화	6.3928	6.3831	-0.15%		금	1,850.6	1,862.8	-0.66%
	원화	1,179.9	1,178.4	-0.1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0월 소매매출,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예상치 상회. 4/4분기 성장률 상향 전망**
 -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달 소매매출은 전월비 1.7% 늘어 전월(0.8%) 및 예상치(1.2%) 모두 상회.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둔화 우려가 있었으나, 주가 및 주택가격 상승, 대규모 저축, 임금 상승 등으로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
 - PNC Financial의 Gus Faucher는 소비자들이 그 동안 구두로는 인플레이션에 우려를 나타냈지만, 실제로는 소비여력이 상당히 양호한 것 같다고 언급. 이번 결과를 반영하여 JPMorgan은 4/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0.4%→0.5%)
 - Carmignac의 Gergely Majoros는 소비 호조로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 한편 Societe Generale의 Jorge Garayo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가 하락 영향은 일시적이며, 주가가 아직 정점을 지난 것은 아니라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향후 FOMC는 좀 더 매파적일(hawkish) 필요**
 - 블라드 총재는 앞으로 있을 FOMC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내년 3월 테이퍼링 종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매월 자산매입 축소 규모 변경(150억달러→300억달러)도 가능하다고 첨언
 - 한편 리치몬드 연은의 바킨 총재는 최근 소비심리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영향이 크다고 지적.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도 고물가 상황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미국 재무장관, 12/3일 이후에는 정부 현금의 부족**
 - 옐런 장관은 국가재정이 고갈되기 전에 정부부채 상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12/3일에 도래할 현금부족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첨언
- **미·중 정상회담, 양국 간 협력을 기대하면서도 각각 자국 이익의 중요성을 강조**
 -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공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원한다면서도, 각국은 규칙을 따라야 하며 미국의 가치를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각각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공존하는 것이 국제사회를 위한 길이라고 언급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을 위한 원칙안 공표

- 전세계 은행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위험 관리를 경영진의 중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 또한 홍수, 화재, 자산가격의 급락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자본이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영기업이 암호화폐 채굴과 연관되지 않도록 경고

- 당국의 규제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력가격 인상 등의 징벌적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강조. 이러한 움직임은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을 앞두고 전력 부족 사태가 심화되지 않기를 원하는 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 호주 중앙은행 총재, 2022년 금리인상 관측을 경계

- 로우 총재는 향후 18개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며, 첫 금리인상은 2024년 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 또한 물가상승률이 2~3%를 유지하더라도, 이것이 금리인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

■ 국제에너지기구(IEA), 미국에서의 공급증가 등으로 유가 상승세 둔화를 예상

- 월간 보고서를 통해 아직 수급이 빠듯하지만(tight) 최근 유가 상승으로 미국 등이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고 평가. 이에 그 동안 지속된 유가 상승세가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 내년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평균 79.4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1/16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NAHB 주택시장지수(전월비): 83, 10월(80), 예상치(80)
- 미국 10월 산업생산(전월비): 1.6%, 9월(-1.3%), 예상치(0.7%)
- 미국 10월 수입물가(전월비): 1.2%, 9월(0.4%), 예상치(1.0%)
- 유로존 3/4분기 성장률(전기비, 잠정치): 2.2%, 2/4분기(0.2%), 속보치(2.2%)

■ 주요 경제 이벤트(11/17 현지시각 기준)

-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강연, 보우먼 및 월러 이사 강연
- 미국 10월 주택착공건수, 건설허가건수, 영국 10월 소비자물가
- 유로존 9월 건설지출, 영국 10월 생산자물가, 일본 9월 공장기계수주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통화정책,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에서는 부적절 - Financial Times

(Fed policy must adjust for inflation)

- 미국 10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 6.2%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 증폭. 많은 부문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수요 증가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 연준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장기간 지속될 위험 상존
- 이에 현재의 통화정책은 오히려 불황의 시기에 적합할 수 있으며, 특히 작년 3월 위기 시 도입한 강력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부적절. 연준의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지체는 향후 막대한 대가를 요구할 소지

■ 아시아 경제, 성장둔화와 고물가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 블룸버그

(Slackflation Beckons as Global Growth Goes Off the Boil)

- 중국 정부는 코로나 19의 확산 통제가 아닌 퇴치를 목표로 제시하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 강화 및 에너지 부족 등으로 경제활동이 둔화. 일본은 코로나 감염 증가와 이에 따른 비상 조치 등으로 3/4분기 GDP가 예상치를 하회
- 한편 중국은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의 큰 폭 상승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물가 여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다만 글로벌 경제 여건을 고려 시, 고물가와 성장 둔화가 장기간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미국의 낮은 실질금리, 불확실한 미래 불구 연준에 대한 신뢰를 반영 - Financial Times

(Everyone is worried about inflation, except the bond market)

■ 중국 국영 부동산업체의 위안화 채권발행 추진, 유동성 우려 완화의 시험대 - 블룸버그

(China State-Run Developers to Sell Yuan Debt in Easing Sign)

■ 글로벌 투자자, 중국의 기술 규제에 대한 대안투자처로 인도에 관심 - Financial Times

(Investors pivot to India after China's tech crackdown)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